

사설

사찰을 지역사회 문화중심으로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동화사에 서 4월 24일 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불교한문서당, 꽃꽂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전당이 되리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찰과 인접한 곳에 자리잡고 있던 음식점 5곳을 철거고 자리엔 건평 303평의 건물을 지어 인근 신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정신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불교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골동품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아 온 지 오래되었다. 이런 가운데 동화사가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문화원을 개원한 것은 불교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하기에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 시대에 사찰은 일반화, 육불

회, 성도회 등의 고유 행사를 개발하여 사람들의 문화의식을 제고시켰는가 하면 사회복지사업 등을 시행하여 일반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돈 있는 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관 역할도 했다. 우리나라 고령시대까지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교육, 의례, 축제의 장소였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증흥하는 배경은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한 현상이 종교지만 종교는 문화 창달의 중요한 동력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필요하면 법당까지도 콘서트홀로 내줄 수 있다는 마을가집이 필요하다. 중생이 없는 부처는 존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동화사의 불교문화원 개원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8군 법회의 의미

국제포교사회가 3일 처음으로 미8군 법회를 개최기로 한 것은 참으로 경하할 일이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저녁 한미연합사 장교식당에서 미8군 장병 등 약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법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이 법회에는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의 법어에 이어 현각스님이 참선강의를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신행 활동 중인 저명한 외국인 스님들이 동참, 법회를 이끌어가 계획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8군을 상대로 한 법회는 3만8천여 미군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고, 이들이 제대 후 우리 불교의 참모습을 자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는 이 같은 법회를 가능한 한 정례화하면서 체계화하여 주한 미군 장병과 그 가족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에 관심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한국불교를 세계에 소개할 영문자료 내지는 관련 서적을 편찬 발행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 한국불교를 체계있게 대외에 소개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료 내지 관련 서적을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한국의 비구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오직 난감함만이 느껴진다. 관련 서적도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허용하는 비구니 사찰도 없다 보니 이를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불교라는 거대한 지도위에서 한국불교가 어디쯤에 처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수하게 많은 이런 초보적인 것부터 해결해 가는데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가사통일 등 衣制개혁 본격화

조계종, 실무연구회 구성 종단회장 제작

조계종이 승가 의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계종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의제개혁을 위한 실무연구회를 구성하고, 법제에 따른 가사구분, 가사 색 및 천의 통일 등 승가 의제 통일화 작업에 들어간다. 의제실무연구회 구성은 지난달 말 열린 제2차 법제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조계종 법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법제위원회 간사 종진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기획국장, 교육원 불

학연구소 사무국장·연구과장, 승가복식 전문연구가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의제실무연구회 구성은 승단의 위계 확립 방안 중 하나로 승가의 제를 재정립하겠다는 종단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제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의제실무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제위원회를 설치해 승복 유통 질서 확립 및 의제의 종단 관리 방안까지도 검토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의제실무연구회 구성을 계기로 종단 의제 개혁 작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우선 가사에만 초점을 맞춰, 현재 법제와 관계없이 착용되고 있는 가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가사의 색상을 통일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휘장(마크)을 디자인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5·7·9·15·25조 등 10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가사 조

수를 5급부터 1급까지 법제에 따라 다섯 가지로 통일하고, 휘장의 경우도 법제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해 부차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제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일단 휘장을 종단에서 부여하는 등 종단차원의 관리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혼용되고 있는 반가사 및 온가사를 온가사로 통일하고, 사찰마다 다른 가사색의 농도도 일률적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의제개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고명석 과장은 "의제개선작업은 스님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가사와 관련한 통일화 작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승복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회당대중사 탄생 1백주년 선포식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0일 종조인 회당 대중사의 탄생 1백주년 선포식을 종인원에서 개최한다. 해일 종인과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과 불교계, 정관계 인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오후 1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법회 및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장엄등 전사회 및 북한미술작품전 등도 마련된다. 한편 진각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51개의 각종 기업사업을 추진한다. <한명우 기자>

한중일 서울불교대회

조불련 참여 제의

봉축일·광복절 공동법회 정례개최 협의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4월2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5차 한중일 대도시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의 공식 참여를 제의하기로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과 8.15공동법회 행사 등 남북불교 공동행사 정례화 및 준비원칙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5일부터 7박8일간 방북하는 종단협 대

표에 홍파스님(종단협 사무총장), 해암정사총지중 통리원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해공스님(태고종 기획감사실장), 무원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을 확정하고, 조불련과 북녘동포 지원사업 창구단 일화 원칙과 북한 단정재료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은해사·화엄사 산중총회 3·17일 주지후보 선출

영천 은해사와 구례 화엄사가 5월 3일과 17일 오후 1시 각각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교구본사주지 임후보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이며, 연령 만 45세 이상의 승려로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직 승이어야 한다. 한편 화엄사는 9일까지 주지 임후보자 등록 및 6일부터 9일까지 거주승 신고를 받는다. 문의 061-782-7600.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월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자리가 모자라요

“사찰개방 불교전파 계기로”

‘주5일근무제 불교계 미치는 영향 대응’ 세미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장곡)가 5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하는 ‘주 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리 배포된 글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시민들의 종교 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것이라며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부호 교수(경남대 경영학)는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문, 본당 소속개원의 약화 및 본당 사목의 효율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많은 사찰이

다양한 중도적 삶 유형 제시를 사찰을 종합복지타운 형태로

발제문을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교회와 주일 미사 참여자의 감소는 비

육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스님(대문사 수련원장)은 ‘전통사찰의 대응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산사를 개방해 심신이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데 이점이 없다’면서, ‘그러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산사의 대응은 몸과 정신의 중도, 노동과 수행의 중도 등 다양한 중도적 삶의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은 ‘도심사찰의 대응방안’이란 발제문에서 ‘도심사찰은 기존의 법회와 기도 등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연있는 산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제 도심사찰은 취미생활에서 생활까지, 나아가서는 보살행을 하는 종합복지타운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몬사사령

김원우 총 편집국 취재1부 차장

김학표 총 경영관리국 광고부 차장

최정근 총 정보센터 차장대우

하동규 총 정보센터 과장

4월1일 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문: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8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인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약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한국최고 문화제 다보탑과 2002월드컵이 만났습니다!

2002 FIFA월드컵 공식 인정상품

세계적인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아름다움 문화제(국보 제20호 다보탑)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실제 원형의 미를 살려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제를 간직함으로써 우리가정의 평화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큰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 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탑의 모양처럼 둥근 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기수행의 상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품 사양과 품질] ■ 크기: 230×230×360mm ■ 재료: 동, 아연 주석의 합금 + 24K 순금도금(순도 99%) ■ 소비자가격: 220만원 (최대 유리케이스, VAT 포함)

한 정 판 매

전 세계에 2002개 뿐 !!

변하지 않는 순금의 멋! 한국을 대표하는 2002 월드컵 최고의 명품!
제품 하나하나 고유번호(1~2002)를 정밀조각하여 소장가치가 으뜸!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이름다움에 누구나 매료됩니다! 소중한 분에게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선물을 !!

이 제품은 인기품목이므로 단시일만에 품절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량이 한정수량에 도달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주문전화 : 055)275-3612~3 FAX : 055)275-3627

2002 FIFA월드컵 금강 다보탑 판매 업체 모집

■ 대상지역 : 전국 ■ 모집대상 : 지역출판, 대리점 ■ 자격요건 : 유통업자 및 매장소유자

■ 문의 : (주)국제스포츠 055)275-3612~3